

4. 마을의 특징

1) 거연대(居然臺)

당대의 명필로 이름난 한일동(韓日東)의 친필이 남아있는 거연대(居然臺)는 연재 김형문이 조성한 암반으로, 이곳을 무대로 시연을 펼친 울진 유학자들의 시집이 전한다. 평지마에 소재한다.

2) 대왕산(大王山)

소야(蘇野) 앞에 있는 산(山)으로, 옛날부터 큰 소나무와 잔솔이 특별히 구분되는 산이다.

3) 성황당(城隍堂)

자연부락이 많은 마을로 성황당(城隍堂)도 3개소가 있는데, 평지마을성황당(城隍堂), 골말성황당(城隍堂), 굿마성황목(城隍木)이다.

제23절 소곡2리(蘇谷二里)[속명: 쉼실, 신곡(薪谷)]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에는 돌재가 놓여있고, 서쪽은 대왕산(大王山)이 보이며, 남쪽은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이 사계1리(沙溪一里)를 거쳐 흐른다. 북쪽은 돌이 병풍처럼 펼쳐진 두리봉(峯)이 솟아 있고 마을 안에는 앞들이 있다. 남쪽으로는 ‘섬실거랑’ 너머에 있는 ‘수구덩이’를 경계로 사계2리와 닿아있으며, 북쪽으로는 ‘마주방아골’을 경계로 소곡1리 새터마을과 접하며 동쪽으로는 죽변으로 나가는 ‘돌재’를 사이에 두고 화성리 동막마을과 닿아있다. 섬실이라는 마을명은 ‘참나무가 많이 우거진 골’이라 하여 붙여졌다고 전한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010년에 조성된 소곡보건진료소가 있다.

2. 마을의 역사

1700년경에 소야(蘇野)에 정착했던 영양 남씨들이 참나무[굴참나무]를 제거(除去)하고 전답(田畓)을 개간하여 처음 개척했다고 전하며, 산(山)에 참나무가 많이 우거진 골(谷)이라 하여 쉼실(薪谷)이라 하였다. 신안 주씨(新安朱氏), 강릉 최씨(江陵崔氏), 평해 황씨(平海黃

氏) 등이 차례로 입주하였다 한다. 마을 앞 삼거리에 소곡초등학교가 위치하며, 지금은 폐교 되고 농기계수리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의 동쪽 산록에 울진 장씨 장익상을 모시는 별묘인 신곡영당이 있다.

3. 가구 분포

총 35세대가 거주하며 울진 장씨(蔚珍張氏),新安 주씨(新安朱氏), 울진 임씨(蔚珍林氏), 영해 박씨(寧海朴氏),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주로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돌재

하죽선도로(下竹線道路)에서 제일 높은 재로 돌이 많다 하여 돌재라 부른다.

2) 마지암골

말(馬)이 지나간 발자국이 암석(巖石)에 박혀있는 골이라 하여 마지암골이라 한다.

3) 성황당(城隍堂)

마을 입구인 나그네산(山) 끝에 당집과 노송(老松)으로 된 성황당이 있었으나 1978년경 폐지되었다.

4) 신곡영당(薪谷影堂)

울진 장씨(蔚珍張氏) 만국(晩菊) 장익상(張益相) 선생을 모시는 신곡영당(薪谷影堂)이 있다.

5) 절터골

소곡1리에서 소곡2리의 대왕산(大王山) 쪽으로 가는 긴 골에 절이 있었다 하여 절터골이라 한다.